

필요광장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산업단지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세계적인 에너지 허브를 지향하는 빛가람 에너지밸리는 한국전력이 지난해 말 본사의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산업·학계·연구원과 연계해 에너지 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R&D), 인재 양성의 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이다. 에너지 관련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기업 유치, 연구개발 지원, 에너지밸리센터 건설, 지역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전력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등이 속속 추진되면서 에너지밸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처음엔 미신 짝였지만, 한전이 이 사업에 쏟는 열정과 추진력을 보면 새삼 놀랍고 대단하게 여겨진다.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당초 계획에는 산업 클러스터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여 연구 및 생산 기능을 담당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클러스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도시형공장)를 허용하면서 건축 연면적의 30% 한도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이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생산제조업종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에 가깝다는 것이다. 원래 의도했던 공공기관 관련 업체나 연구소 등이 입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면서 에너지밸리 사업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는 왕곡에 혁신 산업단지를 분양하고 있다. 광주시도 대촌지역에는 전기연구원 분원과 LS산전 공장의 입주를 전제로 0.5㎢(17만평)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 마련한 광주 지역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의 '로드맵'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에 가까운 남구 대촌 지역에 1.5㎢(45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밸리 사업은 단순히 공장들만 집적되어 있는 산업단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산학연이 개방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만들어 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모델이다. 대학 및 연구소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해 연구소기업으로 창업하고, 더 나아가 강소기업이 되어가는 과정에 산학 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부분의 혁신 클러스터들은 산학연이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가까이에서 건설되어 있다. 신규 산업 단지는 빛가람도시와 근접해서 배치되어야 한다. 연관 기업들이 에너지밸리센터 근처에 입지해서 다양한 연구 및 기술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 첨단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은 최근 마련한 광주 지역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의 '로드맵'에서는 빛가람혁신도시에 가까운 남구 대촌 지역에 1.5㎢(45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결국 산업단지 조성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또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에 반영되어서 국가산업단지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광주시와 전남 그리고 나주시가 왔다투어 각각의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구성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에너지 신산업이 기회로 다가왔는데, 눈앞의 이익만을 쫓기려다가는 정작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광주·전남이 공동혁신도시를 지금과 같이 추진해 왔듯이, 또 상상 협력 방안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통합했듯이, 에너지밸리 사업 중 핵심인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다.

행정 측면에선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의 한 축인 신규 산업단지 건설을 담당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단일 지자체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광역적 관점인 대도시생활권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빠른 시일 내 글로벌 에너지신산업의 허브로서 광주·전남의 근거 논리를 개발해 다가오는 총선·대선에서 우리 지역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탄생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겠다.

법조칼럼

선입견을 버리고...



최형원
광주지검 검사

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수사를 하다보면 피의자에게 전과가 있는 경우 특히 동종 전과나 비슷한 범행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입 때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본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중학생인데 둘 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다. 피해자가 죽들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대하고 괴롭혔다면 고소를 하였고 확인해 보니 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같은 내용으로 학대한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위와 같은 장애가 있어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이어서 대질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는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목적 자도 없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모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가

해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으므로 현장에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병원에서 외출이 가능하므로 외출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병원에 확인을 하여보니 환자가 외출을 하는 경우 대장에 전부 기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범행일시에 가해자가 외출을 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점을 피해자 측에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은 대장에 기입하지 않고 외출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필자는 고민하던 중 병원에서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 병실에는 CCTV가 없으나 복도에는 CCTV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필자는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을 입회시킨 다음 병원에서 설치된 CCTV 동영상을 재생하면서 가해자가 복도에 나오는지 확인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든 일시에 가해자가 병원에

있음을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하게 되었다.

그 후 필자는 가해자의 부모로부터 자신의 말을 경청해주고 끝까지 사건을 조사하여 억울함을 밝혀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에 필자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가해자가 이 사건과 같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더 각별히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원동력 중의 하나는 수사기관의 사건 해결의지라고 생각된다. 나 자신부터 다른 사건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의 핑계를 개개 사건에 있어서 소홀히 한 부분은 없지는, 피의자가 전과가 많다는 이유로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 실체를 밝혀려는 노력을 기울리 한 적은 없는지 반성하고 노력이 어떤 계기로 초입 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본다.

기고

‘대박 박람회’서 대나무산업 미래를 보다



이유욱
담양대나무박람회 조직위 행사지원부장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계가 말해주듯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의 ‘대박예감’은 ‘대박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개막과 함께 개최된 WBC 총회(국제대나무학술발표회)로 회원국 40개국이 모두 참여했다. 모두 320여명의 외국인인 담양문화회관에서 박람회장을 오가며 원더풀을 연발했다. 필자는 이들을 수행하면서 행사 성공을 예감했다.

문화회관에서는 대나무의 산업화, 건축, 기후변화 대체효과 등 국내외 석학들이 그동안 연구한 100여편의 논문발표가 이어졌다.

박람회장에서는 대나무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실제로 보고, 느낄 수가 있어 대나무관련 미래 산업 및 기후변화 생태적 가치를 예측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확실한 현주소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박람회 시작 초기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대나무란 단일 소재로 이렇게 격조 있는 스토리가 전개될 줄은 이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들이 대나무에 미친사람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나무에 관련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대나무에 대해 신소재 산업으로서의 전라화 가능성, 친환경 건축, 기후변화에 대응한 대체 수종으로서 생태적 가치를 엿보면서 앞으로 대나무 관련 산업성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현장에서 봤다.

이들이 회의가 끝나고도 돌아가지 않고 별도 일정을 잡아 박람회장을 보고 또 보고 하여 궁금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대한민국 담양의 대나무에 대한 열정이 표현된 분위기가 너무 좋아 더 느끼고 싶어 머문다고 했다.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될까 여려된다.

박람회조직위는 목표 관람객수 90만명

을 넘어서면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나무 박람회가 더 많은 내국인들이 방문해서 즐겁게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다. 박람회 지붕 없는 주제관인 죽녹원에서 맞는 한국의 가을 하늘과 공기가 얼마나 맑고 쾌청한지 몸소 느끼는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도 대나무를 애호하는 동자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세계 각국의 대나무에 대한 문화 및 관련 산업기술의 교류를 형성하였다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대나무 관련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기가 대나무오장 담양을 시발로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본다.

관련산업의 투자유치와 농업의 산업화 및 관광산업 발전으로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로의 비전이 보이기 때문이다.

▲김규·장흥군보건의 건강증진담당

社說

14년 만에 드러나는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어느 날 나주 드들강 주변. 옷이 모두 빨가벗겨진 상태에서 목이 졸려 사망한 여고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여고생의 체내에서는 남자의 체액이 발견됐다. 경찰은 DNA 채취를 하고 1년 넘게 수사를 했으나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다 3년 전에 이 사건이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목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제조사의 DNA 채취를 한 결과 피해 여고생에서 나온 DNA와 일치했던 것이다. 이는 2010년도 7월 26일 이후부터 DNA신원확인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수감자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보고 기소 의견을 보냈지만 검찰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무혐의 처리하고 말았다. 범인 역시 성폭행을 했지만 죽인 사실은 없다며 완강히 버텼다. 다시 사건이 영구 미제에 빠질 뻔했으

나 나주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담반을 편성하고 최근 1년 동안 재수사를 통해 범인이 이후 저지른 다른 살인사건의 유사성과 정황을 밝혀내고 증거를 보강해 유죄 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결국 검찰도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한 뒤 1년여 만에 드들강 살인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딸이 무참히 살해됐는데도 범인이 오리무중이라면 가족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실제로 피해 여고생의 아버지는 오랜 시간 범인이 잡히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 시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수감자를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보고 기소 의견을 보냈지만 검찰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무혐의 처리하고 말았다. 범인 역시 성폭행을 했지만 죽인 사실은 없다며 완강히 버텼다. 다시 사건이 영구 미제에 빠질 뻔했으

혁신도시 기관 식당마저 서울에 몰아주다니

나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 대부분이 구내식당 운영을 서울 중견 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한다. 당초 혁신도시 건설 취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해당 기관 입장에서 그런 대수롭지 않은 일일까지 꼭 지역을 챙겨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균형 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

주승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KDN(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력거래소·사립학교 교직원연공금단·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농어촌공사 등 혁신도시 주력 기관은 모두 서울 중견 업체에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기관 근무 직원이 8000여 명이나 돼, 하루 수천 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 매출과 수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이득과 혜택이 모두 외지 업체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 업체는 모든 면에서

서울에 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기관들은 연간 매출 및 전국단위 규모를 갖춘 영업장에 대해 지나치게 점수를 많이 줬 영세한 지역 업체는 비집고 들어갈 틈새가 없다. 그나마 지역 업체 가산점이 있지만 미미해서 유명무실하다. 식자재 납품, 청소 용역 등에서도 지역 업체는 고전할 수밖에 없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10년 전 무안군 남악읍으로 옮겨 간 전남도가 구내식당을 지역 업체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잠조했었어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지역에 나눠 주기 위한 조치다.

나주로 내려온 공공기관들도 이처럼 지역 업체를 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대한 기여는 꼭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구내식당 운영자 선정 시 지역 업체 제한 입찰을 하거나 지역 가산점 비율을 크게 높이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다.

無等鼓

고려 말말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 왜곡된 토지 소유 형태는 국가 경제 체제를 붕괴시켰다는 점에서 유의할 만하다. 토지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남세·군역 의무를 지는 자영 농민이 몰락한 것은 국가 총말의 신호탄이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여말 충선왕과 공민왕이 토지개혁에 나섰다. 모두 실패했다.

이런 상황을 꿰뚫고 있던 정도전은 1388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전 국 토지문서를 개정 한북판에 모아 불태

농심은 천심

과 과전법(공양왕 3년, 1391년)을 실시한다. 물론 제도의 한계점이 있고, 모 든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지 못했다. 단점이 있다.

그러나 그간 농민들을 이중 삼중으로 옥죄었던 문란한 토지제도 상황 탓에 이성계는 농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과전법 시행 이듬해인 1392년 군과 신진사대부에 의해 이성계는 왕으로 추대된다. 500년 고려 왕조가 하루 밤 사에 사라졌지만 일부 충신들의 반발만 있었을 뿐, 백성들의 동요는 크지 않았다. 그 바탕에는 이성계에 대한 농민

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근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 선거구 수를 인구 기준으로 결정기로 했다가 농어촌 유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농어촌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인구 수 기준의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 면적, 역사성, 대표성 등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위가 한발 물러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농업국가임에 변함이 없다. 향후 식량 자주권과 안식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농업은 더욱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산업구조상 비중은 낮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삶과 미래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농심은 천심이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잊지 않아야 한다. /채희중 사회2부장 chae@

‘건강의 적’ 담배 아직도 피우시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한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과 오래 산다는 것과는 다르다. 보람있는 삶은 건강하게 가치있는 삶,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때 이뤄지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하지 말 것 이 있다.

뇌세포는 어릴 때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재생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감소한

다. 이 뇌세포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담배이다. 건강하게 살려면 백해무익(百害無益)한 담배를 끊어야 한다. 현재 한국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68%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청소년의 유해 환경의 증가와 모방 심리에 의한 흡연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크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 따르면 남자 고

교생의 흡연율은 27.6% 여고생은 10.7%로 나타났다. 남자 고교생들의 흡연율은 아시아 국가 중 1위이고 여고생도 일본(1.5%)과 중국(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청소년의 흡연은 수명을 24년 단축한다. 세포 조직장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담배연기에 대한 조직 손상이 크기 때문. 무엇보다 흡연이라는 몇몇지 못한 행동이 도피적인 나쁜 습관으로 청춘을 병들게 할까 여려된다.

흡연은 나쁜 습관이다. 나쁜 습관은 인

생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금연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금연은 흡연 당사자의 본인의 자각과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담배가 타들어 가고 있는 것만큼 자신의 심신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자. 건강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흡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순간, 담배를 피우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자. 흡연은 건강의 적이다.

▲김규·장흥군보건의 건강증진담당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